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오늘부터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G20 정상회의도 국제적으로 중요한 행사이지만 우리로서는 G20 직후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이 무엇보다 큰 관심사이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시기상으로 보나 여건상으로 보나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선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다. 지난 2월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정확히 4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하노이 회담이 성과 없이 종료된 이후 북미 간에는 이렇다 할 대화가 이어지지 못했다.

오히려 북한은 미국이 선행을 바꾸지 않는 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드러냈고 미국 또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제재 해제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다만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 비난은 하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 또한 '김정은 위원장은 약속을 지

이제 남북·북미 대화의 시동을 걸어야 한다

키고 있다'고 지켜세웠다. 그러는 과정에 최근 양 정상 간에 친서 교환이 있었다. 친서의 내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흥미로운 제안이 오고 가는 등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전격적으로 방북하였다. 중국은 대화의 모멘텀 실종과 함께 미국의 대북·대중 압박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 출구 전략을 찾던 북한으로서도 시진핑 방북 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나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정부도 한중회담 전에 북중회담이 새로운 전기를 만들 수 있다면 먼저 진행되어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그리고 핀란드·스웨덴 순방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뢰를 통한 대화를 강조했고 정치적 상황과 관계 없이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있다.

상반기가 지나는 시점에 전개되는 이러한 상황들의 핵심은 대화 재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와 한미정상회담의 결과가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남·북·미 3자 정상 간 잠깐 만남이 이뤄지면 좋겠지만 아직 그러한 분위기가까지는 연결되지 못한 것 같다. '톱 다운'(Top-down) 방식으로 두 정상 간의 신뢰는 존재하지만 북미 간에는 아직 물러서기는 곤란한 쟁점들이 존재한다. 실

무적으로 이러한 쟁점들을 다시 좁히지 못하면 정상 간 회담이 어렵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북미 실무 대화가 재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 서면 인터뷰에서 "미국의 실무 협상 제의에 응하는 것이 대화의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북한이 결단만 하면 북미 간 실무 협상은 다시 재개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며칠 전부터 북한 외무성 등 실무자들이 다시 날선 비난들을 쏟아 내고 있다. 폼페이오의 대북 제재 발언을 격렬히 비난하는 가운데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은 미국이 올바른 선행을 가져 와야 대화가 재개될 수 있다고 다시 엄포를 놓았다. 실무 회담이 개최되기 전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이번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및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방북 결과를 전달할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설득했음을 강조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과 한미정상회담 과정에서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분명히 한다면 하반기부터는 다시 대화 국면으로 진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기간 중 남북 분단의 최전선인 DMZ를

방문하여 평화와 대화의 메시지를 발산 하길 바란다.

이 과정에서 남북 간 대화도 복원되어야 한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내부적인 단속을 강화하고 협상 결렬의 책임을 총화하는 시기를 가졌다. 당국간 대화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에 있어서도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언제든 지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남북이 합의한 교류 협력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합의 이행은 평화를 만들어 내는 신뢰의 힘을 보여 준다고 언급하고 남북 관계가 제대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경제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하였다.

아직 북미 간 담판이 남아 있는 북한으로서도 전면적으로 남북 관계를 복원 시킬 생각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한미정상회담 직후 어떤 형태로든 대화가 재개되는 것이 시급하다. 김정은 위원장의 판단이 중요하다. 남북 간에 담을 놓쳐 놓는 북미대화가 잘 될 수 없다. 지난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및 북중 간 대화가 활발했다는 점을 상기할 때 하반기에는 이러한 국면이 조성되어 조속히 남북 관계가 복원되고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기를 기대한다.

종교칼럼

사람을 농치는 사람



황성호  
영암 신복성당 주임신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남미 칠레에서 선교 사제로 살았던 영향인지, 나는 가끔 대화 중에 스페인어를 사용할 때가 있다. 어떤 표현들은 한국어보다는 스페인어가 더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 돌아온 지 3년이 지났지만, 몇몇 스페인어 숙어를 기억하고 있기에 몇 마디 적어본다.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 지역 사제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택시를 탄 적이 있다. 가는 길이 좀 멀어 기사와 몇 마디 나눈다는 것이 칠레 정지까지 이야기하게 되었다. 이때 기사가 정치인들을 빗대어 말한 문장이 기억난다. 그는 정치인들을 '추파 라 상그레'(Chupa la Sangre)라고 하였다. '빨다'라는 추파르(Chupar) 동사와 '혈액, 피'를 의미

하는 상그레(Sangre)라는 단어를 합친 것이다. 이 문장은 스페인어 문화권에서 오랜 동안 사용되어 왔던 문장인데 특히 정치인들에게 쓰였다. 직역을 해보면 '그는 피를 빨아먹는다'라는 의미다. 의역을 해보면 '남의 재산을 빨아먹다' 또는 '남의 사람을 파멸시키다'라는 의미로 번역된다.

이 문장을 기억하면서, 우리나라 국회 의원을 생각해본다. 이들의 권한은 그들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이다.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당선되었고 국민으로부터 특별 권한까지 받은 것이다. 그런데 이들의 말과 행동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면, 'Chupa la Sangre'라는 말처럼 적절한 문장은 없을 것이다.

칠레의 빈민가에서 활동했던 나는, 신자들로부터 밤늦게 거리를 다니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왜냐하면 빈민가는 경찰까지도 꺼리는데 범죄와 마약이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함께 선교했던 사제들이 가끔 주마니를 털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거리의 좀도둑들은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가 덮치기 일쑤였다. 그래서 이 숙어가 기억난다. 가또 엔세라도(Gato Encerrado), 가또(Gato)는 '고양이'를 의미하고, 엔세라도(Encerrado)는 엔세라르(Encerrar)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것으로 '가두다' '감추다, 숨기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 Gato Encerrado를 직역해보면 '감추는 고양이'로, 의역하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숨은 고양이'로 번역할 수 있다. 곧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품수를 부리거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공이수작'이라고 사용된다.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경쟁 상대로서 내가 이겨야 하는 대상으로 생각하는지? 나의 삶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나'를 대하듯 다른 사람을 대하고 사람답게 살아 가도록 서로를 복돋아 주는 나와 뉘 수 없는 불기분의 존재로 생각하는지? 공공이수작(Gato Encerrado)이라는 말은 입으로는 공동체의 조화와 일치를 말하지만 속에서는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탐욕을 감추고, 겉으로는 화해와 용서를 말하지만 속에서는 언제든 기회만 되면

상대의 뒤통수를 쳐서 이기려하고, 합리적이며 논리적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안에는 이기심으로 뚫볼 뚫친 자기 합리와 자기 논리로 절대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닐까?.

아직 필자는 공부 부족한 것 같아, 지금 아간 대학원에 다니고 있다. 나에게 있어서 천주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을 만나 직접 대화하고 토론한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소중한 기회이다. 어느 날 수업 중에 반학의 길을 걷는 분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였다. "교회가 참 좋다. 어릴 때는 교회에서 연필도 주고 연상장도 주고... 그런데 나는 신앙이 없는데 왜 그렇게 예수의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지 모르겠다." 나는 이 말을 듣고 "하느님 앞에는 모두가 평등하고, 예수는 당신의 삶에서 단 한 번도 사람을 농치지 않으셨다"라고 말했다.

이 말을 하는 내 자신도 진실하게 들 여다보았다. 사람을 농치는 사람! 곧 사람을 밀쳐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지? '추파라 상그레'(Chupa la Sangre)나 '가또 엔세라도'(Gato Encerrado)는 아닌지.

한 영화 '특별 시민'과 '임금님의 사건 수첩'이 개봉되었다. 정치인이나 리더들에게 권유하여 한 번쯤 관람했으면 좋은 영화로 추천하고 싶다.

제2회 조합당 동시선거로 지역의 훌륭한 리더 1344명이 선출돼 활동하고 있다. 이들이 조합원들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협동조합의 이념과 정체성에 입각한 공약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하여 조합원의 소득 증가와 함께, 삶의 질이 향상되어 지역 사회가 좀 더 발전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처럼 이 시대 우리가 생각하는 지도자 인 리더는 조직원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참신하고, 능력이 있으며, 솔선수범하며, 도덕적으로 깨끗한 품격과 품위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내년 총선 그리고 대선에서도 국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는 그런 리더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는 각자의 수준을 나타내며, 말과 언어는 그 사람의 품격이라고 하였다. 부디 지도자의 품격과 품위가 풍기는 언어로 희망을 줄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기 고

리더의 품격

또한 국가 최고 지도자를 비하하는 발언들이 난무하여 여야가 맞고소를 하는 등 바람직하지 않는 사회적 여론이 우리 국민들을 무척 피로하게 만들고 있다.

일찍이 나폴레옹은 '지도자인 리더는 국민에게 희망을 파는 사람'이라고 하였는데 작금의 우리 정치 지도자들에게 희망을 찾기에는 어쩐지 거리감이 느껴진다. 지금도 활동하고 계신 어느 고위 정치 지도자는 "정치인의 말은 본인이 생각한 것 이상의 사회적 파장을 갖게 되고 국민에게 말을 할 때는 어느 경우나 겸손하고 진실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그 말을 듣는다"라고 했다.

이처럼 정치인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 주고 있다. 그래서 정치꾼은 다음 선거만을 생각하지만 훌륭한 정치인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생각한다고 한다. 지금처럼 말과 관련하여 '대변인'과 '독재'라는 단어가 언론과 TV에 많이 나오는 일은 일찍이 없었을 것이다.

지난 시대 당시 여당 대변인으로 활동하신 P님과 지금은 비록 고인이 되셨지



박안수  
농협 청년교육원 교수

품격(品格)이라는 낱말의 뜻이 조금은 어렵지만 사전적 의미로 '사람 된 바탕과 타고난 성품 또는 사물 따위에서 느껴지는 품위'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결국 품격은 어느 한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한 결과물로 귀결될 것이다.

몇 해 전 어느 작가는 '말의 품격'과 '언어와 온도'라는 책으로 독자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다.

요즘 국회 일부 정치 지도자들이 표현의 자유와 생각의 차이라고는 하지만,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실(Fact)과 다른 막말과 저급한 발언들로 많은 국민을 실망케 하고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社 說

민선7기 성공 여부 상생 성과에 달렸다

민선 7기 이용섭도와 김영록호의 지난 1년 성과에 대해 지역 정가에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참여자치21'은 광주시의 가장 큰 성과로도 시철도 2호선 논란을 매듭지은 것과 광주형 일자리를 성사시킨 것을 들고 있다. 여기에 4차산업혁명 선도 도시 기반을 닦은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전남도에 대한 평가도 후호적이다. 대형 프로젝트 유치와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경전선 전철화와 무안 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등 1조2000억 원에 달하는 SOC 예산 확보가 바로 그것이다.

반면 아쉬운 대목도 있다. 광주시는 산하기관장 인선을 둘러싼 잡음과 민간공무원 특례 사업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10여 년 넘게 표류해 온 어등산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전남도는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갈등 해결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과 함께 흑산공항 건설 해법을 찾지 못한 점에 대한 지적이 많았

다.

그럼에도 광주시와 전남도에 대한 지난 1년의 평가는 긍정에 더 무게 추가 실린다. 하지만 민선 7기가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으려면 시도가 상생 과제에서 성과를 내야만 한다. 대표적인 것이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다. 시·도는 민선 7기 시작과 함께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 이전 및 군공항의 전남 지역 이전에 합의했지만 후보지 선정에 있어서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에서 반대 여론이 확산되는 데도 끌리지 않은 일은 나치지 않겠다는 뜻이 대우한 감이 없지 않다. 혁신도시발전기금 조성을 둘러싼 논란도 마찬가지다.

상생 과제는 어느 한쪽만 노력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시도와 해당 시·군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협업과 조율이 중요하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1년의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상생 과제를 성공시켜 진정으로 성공한 민선 7기였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5월 희생자 기록 오류 하루속히 바로잡아야

이매실 씨는 1980년 5월22일 계엄군의 총탄에 희생된 5·18 유공자다. 하지만 이 씨를 소개하는 국립 5·18민주묘지 홈페이지에는 고인의 사진이 또 다른 희생자인 고 이명진 씨와 바뀌어 있다.

5·18기념재단과 국립5·18민주묘지(이하 민주묘지)가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하는 5·18민주항쟁 희생자에 대한 정보를 최근 광주일보가 조사한 결과, 5월 희생자 165명 가운데 사진이 뒤바뀌거나 사망 일자가 틀리는 등 무려 100여 명의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오류의 대부분은 개인 이력에 대한 정보가 부실하고 사진이 뒤바뀌거나 숨진 날짜를 잘못 적은 것들이었다.

대표적으로 5·18재단 홈페이지에는 고 고규석 씨의 생년월일이 1965년 2월 25일로 기재돼 있다. 이 내용대로라면 고 씨는 숨질 당시 15세지만, 그는 5·18 때 5남매를 둔 가장이었다. 고 씨의 실

제 생년월일은 1943년 4월12일이다. 5·18재단 홈페이지는 도청을 끝까지 사수하다 5월 27일 사망한 김중연 열사의 사망 일자를 5월 22일로 적어 놓고 있었으며, 민주묘지 홈페이지에는 호남신학대 4학년이었던 문용동 씨를 1학년으로 표기해 놓았다. 생년월일이나 재학 당시 학년이 일치하지 않은 희생자는 48명, 사망 일자가 각각 다른 희생자도 32명이 나왔다.

이처럼 5월 희생자들에 대한 기초 정보가 오류투성이인 마당에 어찌 5월 역사 왜곡과 편향에 대해 나무랄 수 있겠는가. 내년이면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기가 된다.

이제라도 5월 희생자들의 잘못된 기록들을 속히 바로잡아야 한다. 기초 사실에 오류가 있는 역사화 작업은 사상누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기차는 눈 깜짝할 사이에 움직이는 회오리바람 같다." 1876년 한국인으로서 처음 기차 여행을 한 김기수의 승차 소감이다. 강화도조약이 체결된 뒤 수신사로 일본에 다녀온 뒤, 발전된 일본의 문물을 시찰하고 기록한 '일동기유'(日東記遊)에서 그는 또 이렇게 말한다. "차마다 모두 바퀴가 있어 앞차의 화륜이 한 번 구르면 여러 차의 바퀴가 모두 따라서 구르는데 천둥 번개처럼 달리고 비바람처럼 날뛰어, 한 시간에 3~4백 리를 달려도 차체는 요동하지 않는다. 다만 산천초목 가옥 인물 이 보이기는 하나 앞 뒤에서 번쩍번쩍하므로 도저히 견잡을 수 없다."

철도 덕분에 대규모 제조업이 가능해졌고 이에 따른 산업혁명이 전 세계에 걸쳐 거의 모든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토대가 된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나라에 철도가 개통된 지도 120년이 넘었다. 철도는 세상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 목포 삶의 터전을 한 번도 벗어나지 못하던 사람들이 단 하루 만에 전국을 다닐 수 있게 했다. 휴가를 즐기는 것부터 도시의 팽창 그리고 우편 주문에 이르는 온갖 것들

이 철도가 등장하면서 가능해졌다.

오늘은 새롭게 바뀐 '철도의 날'이다. 지금까지는 9월18일이었는데 일제가 한반도 침탈을 목적으로 건설한 경인선 개통일을 기념해 1937년 지정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일제 잔재 청산과 민족 자주성 회복을 위해 철도의 날을 대한제국 철도국 창설일에 맞춰 6월28일로 바꿨다. 특히 올해 철도의 날은 의미가 깊다. 우리도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정회원으로서 가입했고 코레일 역시 유라시아 대륙

철도 진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철도를 통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오늘 철도의 날 행사는 '새로운 출발, 새로운 역사, 한반도를 넘어 대륙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다고 한다. 때마침 북미 3차 정상회담 추진과 함께 북한과 미국이 70년 적대 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 이로써 남북 철길이 열리는 날도 멀지 않았다. 목포역과 광주승정역이 '국제역'으로 바뀌고 목포에서 출발한 열차가 북한을 거쳐 시베리아와 유럽까지 가는 철도 여행을 꿈꾸어 본다. /유재관 편집1부장 jkyou@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政</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金日煥</b>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체육부 220-0633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예향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사진부 220-0694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